

일본에서 담배를 피우는 일이 문제가 된 거와 마찬가지로(된 바와 같이) 한국에서도 그 것이(담배에 관한 사항이) 사회 문제 가운데 빼놓을수 없는 문제입니다. 저도 학교생활에서 남학생들과 같이 술자리를 할 때라든가 커피숍에 등에서 얘기할 때, 담배의 간접 경험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담배로부터의 간접경험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간접피해도 안 좋지만, 담배를 피우는 당사자에게도 그 나쁜 영향이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최근, 한국에서는 수년간 담배를 피어 온 탓으로(피어왔기 때문에, 피어온 이유로) 폐암에 걸린 사람이 담배인삼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일으켜), 승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후(그 사건이 있는 후에) 한국에서는 담배를 제조할 때, 담배갑(담배 포장지) 뒤에 담배의 폐암 유발 가능성을 표기하는 것이 법적인 규칙이 되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공공장소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않도록 하는(피우지 못하게 하는) 규칙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는 의견과, 상기의 사건의 결과에 찬성하는 바입니다. 물론, 본인이(내 스스로) 담배 피우는 것(담배 냄새를 맡는 것등)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을지도 모릅니다만, 객관적으로 봐도(생각해도), 건강에의 악영향, 화재의 원인 등, 나쁜 일 투성이인 담배는 때와 장소에 따라 금지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규칙을 만들어서 금지 시키는 것이 담배 피우는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아직,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피우지 않는 사람보다 많은 이상은 이러한 의견이 나오는(제기되는) 것이 당연한 현실입니다. 지금까지의 두가지 의견을 절충해서 해결을 도모하는 대안으로 국가가 지원을 하여, 작은 금연석뿐만이 아니라, 공공의 금연 건물을 세우는 일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건물이외에도, 흡연가능한 버스를(흡연전용버스) 따로 만들어서 운행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국가의 경제적인 힘이 있고서야, (실현가능한) 이룰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현실정하에서는, 흡연 전용 버스를 만드는 일 등은 불가능하더라도, 좀더 많은 금연석의 확보나, 흡연 장소의 제한 등, 최소한의(가능한한의) 노력만 한다면, 잘 되지 않을까(잘 해결되지 않을까)하고 생각합니다. (생각하는 바입니다.)